한옥

건축공학과

2017011668

공영범

한옥의 정의

한옥은 전통 한국 건축 양식을 이용한 재래식 집이다. 이상적으로 집을 짓는 방법으로는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하며 남쪽으로 짓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 옛 조선의 특징인 배산임수의 원칙을 지키며 짓는게 대중적 이다.

한옥의 구조

일반적으로 한옥에는 대문, 마당, 부엌, 사랑방, 안방, 마루, 외양간, 화장실, 장독대 등이 갖추어있다. 또한 주춧돌, 기둥, 들보, 서까래, 벽, 문, 처마, 지붕 등으로 이루어저있다.

대체 적으로 한옥에 포함되는 시설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온돌 : 북쪽 지방의 취위를 막기위해 구들을 놓은방, 굴뚝과 고래 사이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방을 따뜻하게 했다.  
마루 : 무더위를 식히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다.

처마 : 추녀와 지붕이 내미는 서까래가 처마에 지붕의 멋을 용마루에서 처마끝 까지 경사면 을 조절해야한다. 겹처마는 서까래를 이중으로 만드는 처마다. 한옥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하다.  
 담장 : 담은 여러가지의 담을 꾸미는 방법이 많이있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이다.  
 안방 : 주인 여자가 거처하는 방

대청마루 :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  
 건넌방 : 노인이나 자녀가 거처하는 방  
 사랑방 : 주인 남자가 사용하며 손님을 맞기도 한다.  
 정주간 : 부엌과 방사이에 벽이 없이 부뚜막과 방바닥이 잇닿은 곳.  
 바당 : 부엌  
 행랑채 : 머슴이 거처하는 곳  
 별당 : 사랑채와 안채에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집, 상류층 한옥에만 있다.

한옥을 통해 본 조상들의 멋과 지혜  
 지혜 : 한옥의 위치와 구조,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위치 : 북쪽(뒤쪽)으로는 산이 막아 주고, 남쪽(앞쪽)으로는 들판이나 개천이

            흐른다.  
 구조 : 지방의 기후 특징에 따라 집의 구조가 달랐으며, 온돌과 마루가 이용되었다.

기능 : 마루와 방, 마당이 계절에 따라 알맞은 기능을 수행하고, 가족들이 편리한

            생활을 도왔다.  
\*멋 : 지붕의 선과 담 그리고 문살의 무늬 등에서 민족의 은은한 마음씨와 정겨움,

        자연과의 이상적인 일치감을 느낄 수 있다.

한옥의 종류

초가집 : 갈대나 볏짚을 이용하여 만든집이다. 단열이 잘되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나 썩기 쉬워 한 두해가 지나면 바꿔주어야하며 대표 적인 서민 주택이다,

기와집 : 흙을 다듬어 불에 구워 만든 기와를 사용한 집이다. 기와로 지붕을 만든 집이며 검은색 기와를 많이 썼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푸른 유약을 발라서 청기와로 지붕을 이기도 하였다, 기와 집은 조선시대의 유교의 영향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철저히 구분되어있다.

너와집 : 지붕을 붉은 소나무 껍질을 모아 만든집이다.

귀틀집 : 귀틀집은 큰 통나무를 정자 모양으로 층층헤 맞추어 얹고 그 틈을 흙으로 메워 지은 집이다.

형태

날개집: 집채 좌우로 붙어 있는 곁채를 뜻한다.

정'자집: 지붕의 지붕마루가 '丁' 자 모양인 집을 뜻한다.

ㄷ자집: 건물 평면이 'ㄷ' 자인 집을 뜻한다.

一자집: 통풍이 유리하도록 'ㅡ' 모양으로 만든 집으로 남부 지방에서 많이 쓰였다.

ㄱ자집: 통풍이 중간정도 되도록 만든 집으로 중부 지방에서 많이 쓰였다.

ㅁ자집: 보온 효과를 높이고 통풍을 막으려고 'ㅁ' 모양으로 지은 집으로 북부 지방에서 많이 쓰였다.

지붕

[팔작집](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C%94%EC%9E%91%EC%A7%91&action=edit&redlink=1): [용마루](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A%A9%EB%A7%88%EB%A3%A8&action=edit&redlink=1) 부분이 삼각형을 이루는 지붕 모양새이다.

[박공지붕](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B0%95%EA%B3%B5%EC%A7%80%EB%B6%95&action=edit&redlink=1)(맞배지붕): 지붕의 양면이 마주치는 모양의 지붕으로 측면이 개방된 모양새이다.

우진각: 네 개의 추녀마루가 동마루에 맞물려 있는 모양새이다.

사각지붕: 추녀마루가 지붕 가운데로 몰린 모양새이다.

다각집: 추녀의 마루가 여러 가지로 된 모양새이다.

육모정: 여섯 개의 기둥으로 여섯 모가 난 모양새이다.

역사

한옥은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초기에는 구석기인때는 막집을 지어 살았으며 신석기시대에 들어 발전한 형태인 움집이 지어졌다. 땅을 얇게 파고 서까래와 기둥이 있는 작은 집을 지은 수혈주거를 중심으로 생활하였고 서까래와 기둥은 나무, 지붕은 풀을 덮었다. 청동기시대에는 내부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운 비교적 넓은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철기시대에는 여기에 구들과 온돌이 더해져 난방기능이 향상되었고 흙을 구운 기와를 이용하여 지붕에 얹은 기와집이 등장하여 오늘날의 한옥으로 까지 이어졌다.

한옥은 요즘 외국에도 많이 알려젔으며 한옥에 사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또한 한옥으로 이루어진 마을, 한옥 체험 할동등 많은 관광이 활성화 되어있다.

한옥의 장점은 한옥은 자연과 닮게 짓는다. 산자락에 의지해 지으면서 결코 산을 깍지 않는다. 정원에 쓰는 조경석도 원래 자연에 있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사용한다. 자연의 운행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한옥의 건축재로도 목재와 흙으로 헐어 넘어지면 환경의 오염 없이 바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료들이다. 환경을 고려한 이러한 생각들은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잘 이용해 우리생활에 가장 적합하도록 일조와 통풍 및 조형계획을 해왔다.